

석유제품 수출 3억배럴 돌파한다!

1-10월 2억7800만배럴 달해 ... 정제마진 악화에도 경질유 호조

정유4사는 글로벌 수요 감소와 정제마진 악화로 석유제품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출 부문에서 선방해 2009년 수출량이 3억배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정유4사의 석유제품 수출은 2009년 1-10월 2억780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0.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세계적인 석유제품 공급 증가와 수요 부진이 겹친 것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유제품 시장 관계자들은 북반구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등유·경유의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올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억배럴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 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휘발유와 등유의 수출은 각각 3214만배럴과 444만배럴로 42.6%, 183.9% 증가했다.

경질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는 1억500만배럴로 소폭 감소해 3대 경질유종의 전체 수출은 6% 늘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세계 석유제품 시장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수출 지역 다변화와 품질 경쟁력 유지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7>